시민이 행복한 성남

Seongnam Culture

성남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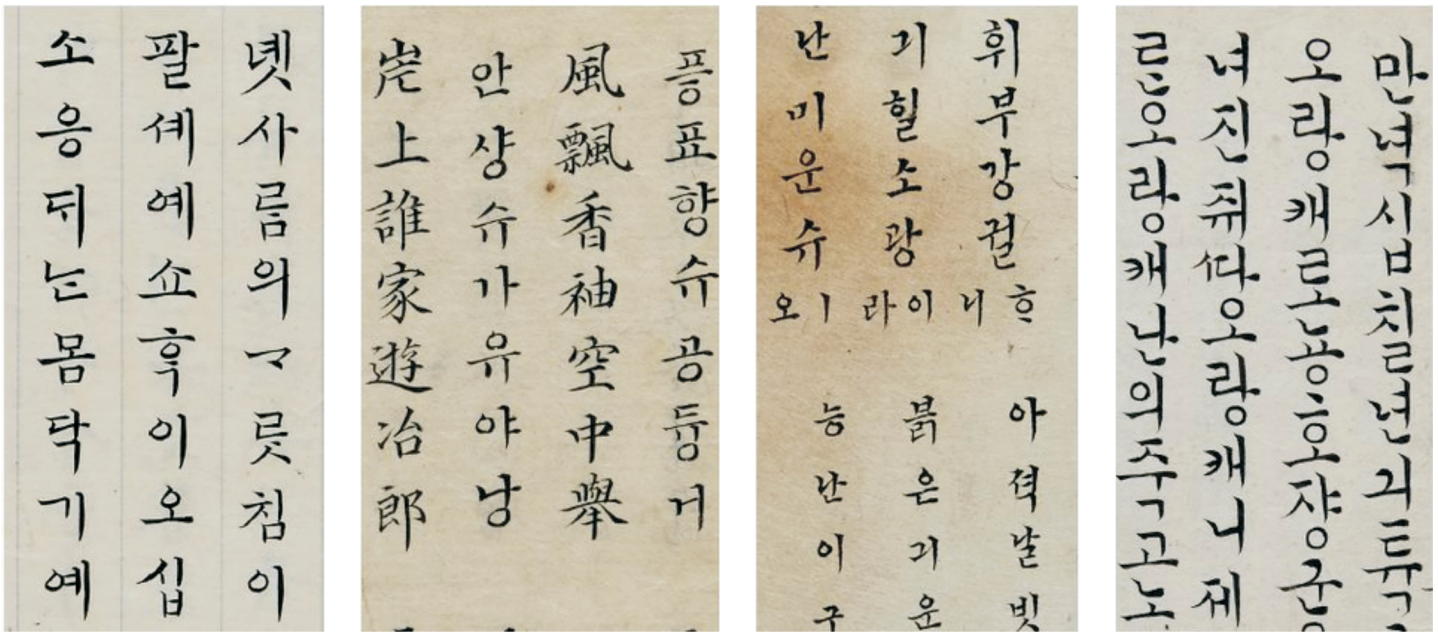
2016. 6 vol. 24



'작곡가 박태현 노래비'(율동공원 조각공원 내)

참여의 문화, 나눔문화의 산실

성남문화원



사진설명 한글 필사체 중 정자의 변천. 어제자성편(1746년), 고문진보(영조 연간), 학석집(19세기), 산성일기(연대 미상)의 서체(왼쪽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글 반포 570돌' 을 기념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특별전이 원내 장서각 전시실에서 12월 31일까지 개최된다.

표지설명

'작곡가 박태현 노래비'

분당 율동공원 '야외조각 전시장'에 있는 '작곡가 박태현 노래비' 는 박 선생이 어린이와 함께 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조각가 이종희 선생의 작품을 2008년 11월 성남시에서 설치했다.

박태현 작곡가는 '코끼리 아저씨', '산바람 강바람', '달 따러 가자', '태극기' 등 우리에게 친숙한 동요 200여곡과 '한글날 노래' 와 '삼일절 노래' 를 작곡하시고 1989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KBS 동요대상' 등을 수상하셨으며, 1980년대에 성남시에 정착하셔서 87세로 타계하실 때까지, 맑고 청렴한 인품으로 성남문화예술인에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셨다.

Contents

02 서예전 / 목차
03 2016년 상반기 문화행사
08 2016년 신규사업
10 성남의 역사인물 소개 - 최진립, 이경민
12 성남시 향토문화제 14호 평양조씨 석실공 조철산 묘역
13 성남학연구소 운영
14 성남향토사적인물 [둔촌 이집, 강정일당, 남상목 의병장]
16 특색강좌
18 문화원 소식
19 하반기 행사

발행일 2016. 6. 30 발행인 김대진 편집인 김정진 김미경 고 웅 발행처 성남문화원
주소 1334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15번길 7 전화 031)756-1082, 1028 팩스 031)756-1056
홈페이지 www.seongnamculture.or.kr

2016 새해 천제봉행 및 판교마당바위 해맞이

- 1월 1일, '판교마당바위'에서 개최 -

병신년 새해 첫 날 성남문화원과 판교마당바위문화추진위원회가 주최한 '2016 성남시 새해 천제봉행 및 해맞이 행사'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 이종훈 국회의원, 성남시의회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 김용 예산결산위원장, 김해숙, 노환인, 이기인, 이승연, 박광순, 박영애 시의원 등과 1,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1부 에는 마당바위에서 '새해 천제봉행' 및 '해맞이 행사'가, 2부 문화행사는 판교도서관 광장에서 '전통문화체험 행사', '신년 휘호 받기', '시민 대북 타고', 성남시립국악단, 성남농악보존협회, 이주희 연극배우의 신년 축시낭송, 신미경 무용가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제15회, 성남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 2월 20일,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 -

'제15회, 성남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가 지난 2. 20일 시청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가운데 1부 식전행사로, '오리뜰 농악, 무용, 경기민요' 등의 전통 공연을 시작으로, 2부 행사에는 개회식에 이어 아슬아슬한 '궁중 줄타기', '떡메치기, 연날리기, 윷놀이, 투호, 새끼줄 꼬기, 가훈 써받기, 토정비결, 화전 부치기, 전통차 시음, 전통민속놀이 체험, 전통악기 체험' 등의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로 개최됐다.또한 민속놀이 대항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와 병신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소원지 쓰기', 일 년간 부스럼과 종기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는 '부럼깨기 체험', '부럼 박 깨기'등의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마련됐다.





2016 판교 쌍용거(巨) 줄다리기 시연회

- 2월 27일, '판교동 주민센터 앞 운동장'에서 개최 -

예로부터 우리 고장 판교에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떨쳐 버리고자 개최되어 전승되고 있는 '판교 쌍용거(巨) 줄다리기' 시연회가 지난 2월 27일 판교동 주민센터 앞 운동장에서 개최됐다.'판교 쌍용거(巨)줄다리기'는, 1970년대 초반 판교 너더리에서 행해졌고, 성남문화원이 1980년에 발굴 복원·재현하여 1984년부터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출전 이후 '성남시 체육대회', '팔도 민속한마당 축제', '성남농업인의 날' 등 시민사회에 선보이다가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로 중단된 이후 성남문화원이 보존회를 재정비해 2010년부터 시연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낙생초교앞 회나무앞에서 '고사와 비나리'후, 식전행사로 '동아줄 꼬는 소리', '경기민요' 축하공연, '민속놀이, 전통악기 체험, 먹거리 한마당' 의 행사 등으로 흥겨운 한마당 장이 펼쳐졌다.



제97주년 3·1절, 성남3·1만세운동 기념식

- '성남시청' 온누리대강당에서 개최 -

김대진 문화원장, 이점복 광복회 성남지회장, 남기형 남상목의병장 손자, 한동억 한백봉 애국지사 손자, 본원 임원들은, 기념식 전에, 율동소재 성남3.1만세운동 기념탑과 성남 출신 독립유공자 한백봉, 한순회 선생과, '3.1절 노래' 작곡가 이신 박태현 선생 묘역에서 헌화와 참배했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박권종 시의회 의장, 김태년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태극 길놀이 퍼레이드'와 성남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SNS'의 '태극기 퍼포먼스' 공연, 시민이 함께하는 '태극 나무 만들기' 행사 후, 기념식장으로 이동하여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경축사', 추모 공연, '3.1절노래' 제창, '만세 삼창'의 순서로 이어지는 기념식에 참석했다.

성남문화원은 1919년 성남지역에서 주민 3300여명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분당구 율동에서 1999년 첫 기념식을 시작으로 2006년 3월 1일 '성남3.1만세운동 기념탑'을 율동에 건립했으며, 올해 18회째인 '성남 3.1 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을 진행했다.





성남 향토민속놀이 「성남 오리뜰 농악」 시연회

- 6월 9일, 시민을 찾아 '야탑역 광장'에서 개최 -

우리시의 대표 향토 민속놀이 '성남 오리뜰 농악' 시연회가 지난 6월 9일 야탑역 광장에서 시민을 찾아가 시연회를 개최했다. 오리뜰 농악은 성남문화원과 성남농악보존협회(회장 강승호)의 노력으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전통예술 복원사업으로 지정받아 성남오리뜰농악이 복원된 지 10년째가 됐고, 이전의 화려했던 모습으로 여러 민속예술 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성남시의 대표 행사들에 출연하고 있다.

'오리뜰'은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의 평야 이름에서 유래됐으며, '오리뜰 농악'은 1940년 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분당구 구미동의 옛 지명인 오리뜰에서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농번기와 농한기를 가리지 않고 전성기를 누리다 1989년 분당 신도시 개발로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가 2007년 복원됐다. 오리뜰 농악은 노동과 놀이가 결합한 두레농악으로, 주민화합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대동놀이였다.





성남문화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정자중학교 업무협약

성남문화원은 성남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사 바로알기와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2016년 1월 21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2월 17일 정자중학교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김대진 원장은“성남시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성남의 문화와 역사를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성남문화원이 주최하는 ‘성남사랑글짓기대회’와 ‘내 고장 성남 바로알기’, ‘송산백일장’ 등에 많이 참가하여 성남의 문화와 역사를 알며 애향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권혁수 교육장은 “성남이라고 하는 곳은 교육인프라가 풍부하다.
성남문화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향토사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을 교육과정에서 보완하여 학생들이 내고장의 역사를 알고 자긍심과 성남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자중 김성일 교장은“성남문화원에서 나온 역사·문화 자료를 우리 학교의 문화유산관 공간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성남의 자랑스런 역사를 알게 하고 향토애를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참여하여 성남시민으로서 애향심을 갖고 세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1회, 둔촌 중국백일장 및 제8회 한·중 문학인 만남

- 5월 28일 심양시 조선족6중학교, 한중교류문화원에서 개최 -

성남시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심양시에서 한국 성남시·중국 심양시 국제자매결연 18주년 기념 제11회 '둔촌 중국백일장' 과 '여덟 번째, 한·중 문학인 만남'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백일장 행사에는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심양시교육연구원 이강도 부원장,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교육담당 이혜경 영사, 선양한국인회 박영환 회장 등 내빈과 670명의 조선족 학생들과 교원이 참여하여 98명의 수상자를 시상했고, 조선족학생들과 국제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전통 춤과 현대무용, 합기도 시범 및 전년도 입상작품 낭독 등 다채로운 문예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한·중 문학인의 만남'에서는 심양시조선족문학회 권춘철 회장, 연변 시랑송협회 석화 고문, 한중교류문화원 김영식 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5편의 시 낭송과 윤동주 시인의 시를 주제로 연변 시랑송협회 회원들이 시극을 선보였다.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는 1998. 8. 31일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맺었다.







학교를 찾아가는 〈내 고장 성남 바로 알기〉 강연



성남문화원 특색사업으로 12월까지 관내 초·중·고교(50개교 선착순)에, 문화해설사가 직접 찾아가 강연을 하고 있는 '내 고장 성남 바로 알기' 강연이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성남의 역사와 지역 내 문화유적지에 대한 해설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애향심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성남문화원은 지난해에도 총 30회(2,548명)에 걸쳐 진행한바 있다.
하반기 강연을 희망하는 학교는 성남문화원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6 성남학 아카데미〉 시민들의 큰 호응속에 진행

성남문화원 특색사업으로 우리고장 성남의 역사와 문화, 전통, 사회, 인문, 교양 등을 집대성한 성남문화원 특색강좌 '2016 성남학 아카데미'가 지난 3월 23일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전반기 강좌를 마무리 했다. '2016 성남학 아카데미'는 '성남학'의 심화적인 내용은 물론, 시민들의 인문 · 교양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타 지역 현장답사로 진행했다.

서굉일 한신대 명예교수의 『이혜경 지사의 항일독립운동과 정신』, 한동억 성남학소장의 『복원해야 할 성남의 멸실 유적』, 정상희 폴레텍대학 강사의 『위안부 문제의 엇갈린 시선』, 정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세종대왕의 창조 리더십』, 정종수 전.국립고궁박물관 관장의 『사람의 한 평생 삶과 죽음』, 김경란 프랑스 문학박사의 『외국문학, 문화에 빠지기』, 김용우 을지대학교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교수의 『서양미술로 보는 르네상스』 등 16명의 강사들의 명 강의가 진행되었다.



성남문화원은 (부설)성남학연구소 운영을 통해 300여편이 넘는 성남 관련 연구 논문 성과와 지난 6년간의 '성남학' 강좌 운영을 바탕으로 성남의 뿌리를 찾고, 시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남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제21기, 성남문화학교〉 풍물, 가야금 등 9개 강좌 16개반 운영

1년 과정으로 3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되는 부설 성남문화학교(교장 서굉일)는, 지난 3월 30일 개강식을 갖고, 오리뜰 농악, 가야금, 영어문화, 경기민요, 한문서예, 문인화, 사군자, 한국무용, 판소리, 한글서예, 풍물 등 9개 강좌 16개 반으로 운영된다.

성남문화학교는 지난 1996년 개교되어, 1999년 문화관광부 문화학교로 지정됐으며, 차별화된 전통 문화 강좌로 운영되어, 지난 20년간 총3,66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성남시민을 위한 선도적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01

‘성남 옛 이야기’ 보급 및 전승 사업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하고 성남문화원이 주최하는 ‘성남 옛 이야기 보급 및 전승 사업’은 청소년들이 성남에 살았던 옛 선조들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알고, 흥미롭고 쉽게 성남의 역사를 공부하며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성남 옛 이야기 보급 및 전승 사업’ 신청은 11월까지 50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문화해설사가 찾아가는 성남 옛 이야기 해설과, 성남시 관내 주요 유적지에서 문화해설사가 성남 옛이야기를 해설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성남문화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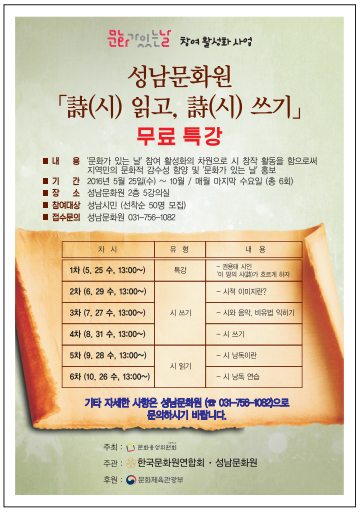
문화가 있는 날 「시 읽고, 시 쓰기」 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시 읽고 시 쓰기’사업이 5월 25일 권용태 시인의 ‘이 땅의 시가 흐르게 하자’ 강의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융성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남시민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5월~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1시에 성남문화원 2층 5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시와 음악, 비유법 익히기’, ‘시 쓰기’, ‘시 낭독이란’, ‘시 낭독 연습’ 등 알찬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강의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성남문화원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03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경기도 '우수민속예술단체지원'사업

2016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우수민속예술단체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시연행사가 6. 9(목) 오후5시 야탑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무술'은 과거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였던 곳으로, 현재 분당구 이매동을 일컫는 마을 이름이다.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는 집을 새로 지을 때, 집 터를 다지고, 지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하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동요다. 성남문화원은 우리 고장의 사라져가는 민속 예술을 조사, 발굴, 재현함으로써 내 고장의 고유문화에 대해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하여 1982년 집터 다지는 소리 경험자인 원주민 김영환 옹 외 마을 주민, 방영기(중요무형문화재 19호 전수교육조교), 최종민(교수/국악인) 씨 등 전문가의 확실한 고증을 바탕으로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를 복원 재현했다.



이날 행사는 성남문화원 주최, 방영기 총연출로 식전 길놀이와 경기민요, 내빈들의 축사,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시연, 출연진과 함께하는 뒷풀이로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되었다.

04

2016 문화의집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
내 생에 첫 번째 방송 My First Broadcast (M.F.B)

'내 생에 첫 번째 방송 My First Broadcast (M.F.B)'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의집협회가 주최하는 '2016 문화의집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성남문화의집에서 주관한다. 청소년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제작 실습 교육에 참여하며 다양한 문화적 소양을 쌓고 동시에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성남 지역 문화관련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의 총괄 진행은 성남문화원과 성남문화의집이 진행하고 있으며 정자청소년수련관과 성남FM, 사랑방문화클럽이 함께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6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의 방송 제작 실습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이 제작한 방송은 실제로 지역 라디오 방송인 '성남FM'에서 방송을 송출한다. 또한 지역의 동호회들과 함께 공동기획하고 제작하여 '보이는 라디오'형식의 공연을 9월 3일(토) 많은 시민들 앞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탄천 전투에서 전사한 최진립(崔震立)

최진립(崔震立)은 1568년(선조 1)에 출생하여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전사하였다. 최진립의 자는 사건(士建)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우 계종(繼宗)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갑오년에 문과에 올라,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이 되었으며, 벼슬이 공조참판·경기수사(京畿水使)에 이르렀다. 69세 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탄천에서 싸우다 순국하였다. 병조판서로 추증되었고, 시호는 정무(貞武)이며, 정려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해에 공주영장(公州營將)이 되었다. 그 후 두어 달 만에 남한산성이 포위되었는데,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가 군사를 거느리고 근왕(勤王)하면서, 공의 나이가 많은 것을 민망히 여겨 황박(黃珀)으로 대신하게 하니, 공이 강개하여 말하기를,
"내가 늙어서 장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능히 갈 수는 있소"하고, 드디어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니, 좌우에서 감동하였다. 탄천 상류인 험천(險川)에서 패전하였는데, 공이 꼿꼿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활을 쏘니 빗나가는 것이 없었다. 화살이 다 되자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 없다. 나는 여기서 한 치도 떠나지 않고 죽을 것이니, 너희들은 이 자리를 표시하여 두라" 하였다. 일이 평정된 후에 여러 아들이 그곳에서 공의 시체를 찾았는데, 화살이 온몸에 맞아 고슴도치와 같았으나, 얼굴은 살아 있는 것 같았다. 《연려실기술》 <인조조 고사본말>

험천(險川)은 곧 탄천의 상류인데, 머내, 머흐내 등으로 불려지며, 분당과 용인의 경계지역 일대이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었고, 전사자의 시신이 들판을 덮어 말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최진립의 후손들이 오늘날 경주 최부자 집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병자호란 때, 광주의 쌍령리에서도 우리 군사가 많이 전사했는데, 훗날 역대 임금들은 신하를 보내 험천과 쌍령리에서 전사한 이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냈고, 임금이 친히 제문을 지어 보냈다. 쌍령리의 정충묘(精忠廟)는 현재까지도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으나, 험천에는 기우제단이 있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기우제단(祈雨祭壇) : 숲 안, 역말 주민들이 가물 때에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영장산 정상에 있었다.





원칙에 충실했던 덕수이씨 의정공 이경민(李景閔)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0호



광해군 때 『대전(大典)』을 논의하는 자리에 선공감 직장(繕工監 直長) 이경민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 이에 이조에서 이경민의 잘못을 조사하고자 건의 했는데, 광해군이 "이경민은 담장 밖의 집을 짓는 곳의 공사를 자리를 뜨지 않고 감독하고 있으니 조사하지 말라."하였다.

이경민이 맡은 선공감의 직무가 궁궐에 필요한 토목, 각종 수리, 물품의 조달 등을 맡은 기관이었는데 이경민은 자기가 맡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뜨지 않고 감독했던 것이다.

이경민이 의성현령으로 있을 때(1624년) 이황(李滉) 후손 이유도(李有道)가 도산서원(陶山書院) 원장으로서, 관의 명령을 어기고 부역에 응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이경민은 이것을 지방토호와 유력자들이 사림으로 행세하며, 수령을 능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잡아다 재판을 하던 중에 이유도가 관찰사를 모욕하는 말을 하자, 경상감사 원탁(元鐸)에게 보고하고 10대 미만의 곤장을 때렸는데, 그만 죽어버렸다. 그러자 그 향리의 족당들이 떼를 지어 관아를 둘러싸고, 사또를 위협하고는 드디어 형벌을 담당한 관리를 묶어갔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봉(李峯)과 이암(李巖)이 격쟁(擊錚=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하여 원통함을 호소하고, 친척인 이홍중(李弘重)에게 부탁하여 도산서원 원생들과 여러 고을에 통문을 돌렸는데, 그 내용은 관찰사를 비난하는 것이었다.(1626년 6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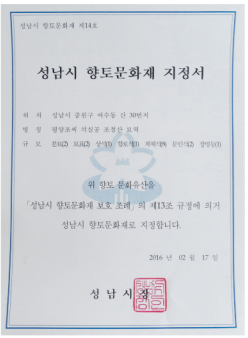
일이 이렇게 확대되자, 사헌부에서는 시체를 검사하는 한편, 지나치게 형벌을 가한 책임을 물어 경상감사 원탁과 의성현령 이경민의 잘못을 문책하도록 하고, 이홍중은 신문하여 세 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의 정언 최혜길(正言 崔惠吉)은 이 일을 수차에 걸쳐 임금에게 고하였는데, 그 말 중에 '마음대로 죽였다.' '억울하게 죽었다.' '멋대로 죽이는 수령.' 등은 이경민을 가리키는 말로써 당시 장령 이경헌(掌令 李景憲)은 자신의 직책을 바꾸어 주기를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이경민이 자신의 친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인조가 말하길 "경상감사 원탁은 형벌로 인해 목숨을 잃게 하였으니 참으로 잘못이 있지만, 이유도의 소행 역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고 매우 흉악하다. 지금 만약 이로 인하여 경상감사에게 죄를 준다면, 영남의 사나운 습관을 징계하여 제압하기 어려울 듯하다. 사건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보아가며 처리할 것이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그리고 특명으로 최혜길을 송화현감(松禾縣監)으로 좌천시켰다. 이것은 정언으로 있을 때, 이유도의 일을 논계하며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편파적으로 공격한다고 하여 외직으로 좌천시킨 것이다.

이 사건은 근고에 없었던 변으로, 설혹 죄 없이 죽었다 하더라도 해당 관사에 고소하여 억울하고 잘못된 점을 폭로하라는 국법이 있는데도 사사로이 무리를 모아 관원을 잡아갔으니, 이런 조짐이 만약 커지면 반드시 막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나라의 명을 받은 관리를 무시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꺼리는 바가 없는 것이니, 국위가 존엄하지 못해 나라꼴이 되지 못할 것을 경계한 것이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14호 「평양조씨 석실공 조철산 묘역」 지정

성남시 여수동 소재 <평양조씨 석실공 조철산 묘역>이 성남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4호로 지정(2016. 2.17)됐다.

조철산(趙鐵山, 1404~1465)의 본관은 평양, 호는 석실(石室)이다. 정숙공(貞肅公) 조인규(趙仁規)의 현손이자 평양부원군 조덕유(趙德裕, 1314~1352)의 손자이며, 고려 말의 충신인 송산 조견(趙狷, 1351~1425,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3호)의 아들이다.

또한 '태종'대에 영의정을 역임한 월정(月亭) 유정현(柳廷顯)의 손녀사위로 사후에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중원구 여수동 응봉(鷹峰)의 서쪽 구릉에 남향하여 자리 잡은 조철산의 묘역은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쌍분(雙墳) 구조에 묘표, 문인석, 장명등, 상석 등 조선 초기의 석물이 갖추고 있으며, 조철산의 묘표는 1468년(세조 14)에, 그리고 정경부인 이씨 묘표는 1474년(성종 5)에 건립한것으로,

현재, 성남 지역에서 건립 연월이 뚜렷한 묘비 중 가장 오래된 묘표이고 문인석과 장명등도 조선 초기의 것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겻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2016년 성남학연구소 사업 추진현황

성남문화원(부설)성남학연구소는 성남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성남학연구소는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6년도 주요사업으로 학술회의 개최, 성남문화연구, 지명총람 발간 등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협의추진 중에 있다.

〈제21회 학술회의〉

성남문화원은 오는 2016년 10월 26일(수) 오후 2시부터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제21회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학술회의는 <낙생행궁 기록을 통해 본 성남의 역사>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행궁은 임금이 서울의 궁궐을 떠나 지방에 행차할 때 머무르는 곳으로서 수원화성행궁과 남한산성의 광주행궁이 대표적이다. 낙생행궁은 조선 성종이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실시된 사냥 행차 때 머무른 곳이다. 올 해 학술회의를 통해 '역사기록 속의 행궁운영', '국왕의 지방행차와 낙생행궁', '조선시대 행궁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된다.

『성남지명총람』 발간

성남 지역 각 마을의 잊혀져가는 옛 지명을 총 정리하여, 기록물로 남김으로써 성남의 역사와 문화 및 명리학적 특징을 규명하여 소중한 우리 지명의 영구적 보존을 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자료조사 및 집필에는 김대진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수영 부원장, 방영기 부원장, 김진수 이사, 권선출 특별회원, 윤종준 상임위원이 맡아서 진행 중에 있다.
지명 유래 조사 대상은 옛 광주군에서 성남시로 승격된 총 4개면 37개리이며, 고문헌에 나타난 지명 관련 기록, 고지도에 표시된 지명, 1910년 일제의 지방제도 개편 자료, 1973년 성남시 승격 당시의 지명 관련 자료, 분당신도시 건설 당시 분당 지역 지명 부여 자료, 판교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 건설 지명 자료, 금석문에 표시된 지명, 개인 문집에 기록된 지명 관련 자료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이렇게 조사된 지명 자료는 성남시 관내 전통 지명의 유래 보존 및 전승과 도로명, 시설명칭 제정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지명 유래에 담긴 스토리를 활용한 역사, 문화의 복원과 문화창작 콘텐츠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문화연구』 제23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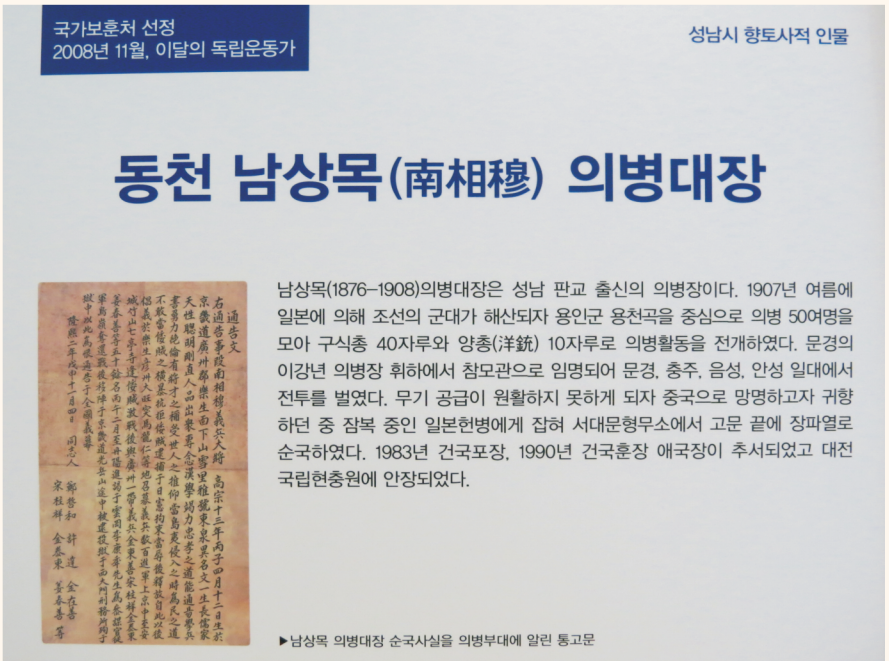
성남학연구소는 개소기념일인 9월 20일 성남문화연구 논문집 제23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성남문화연구 논문집은 지난 23년 동안 성남시 관련 역사, 민속, 문화, 향토자료 발굴 등의 연구논문과 자료를 축적하여 300편 이상의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수록될 예정이다.

조 남 두	성남지역 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 방안
서 굉 일	한국사의 인식과 평화운동
최 만 순	성남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김 주 홍	성남 천림산봉수의 정비·활용방안 고찰
윤 종 준	금토동 남원윤씨 세장지의 인물 연구
정 태 열	성남 탄천 서부지역에 대한 풍수지리 고찰

<성남시 향토사적인물 소개>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원복덕)가 주관한 성남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여성사 특별전시회'에 성남문화원이 소개한 성남시 향토사적인물 전시회 자료입니다.







효행, 충절, 신의를 실천한 역사인물
경기도기념물 제219호

성남시 향토사적 인물

큰 어른 둔촌 이집(遁村 李集) 선생



둔촌 이집

(1327~1387)은 고려 말의 문신으로 해박한 지식과 고상한 지절(志節)로 이름이 높았으며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도은 이숭인 등과 교유했다. 광주(廣州)이씨의 중시조로서 후손들이 조선 전기 국가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조선시대 가장 번성한 가문으로 일컬어졌다. 나라에 대한 충절, 부모에 대한 효성, 친구에 대한 신의를 실천하였던 역사 인물이다. 조선 현종 10년(1669)에 건립한 광주(강동구 암사동)의 구암서원(龜岩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유고로 『둔촌유고(遁村遺稿)』가 있다.

庭訓(자손들에게 가르침)

讀書可以悅親心 (독서가이열친심)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惜寸陰 (면이자자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여라
老矣無能徒自悔 (노의무능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한 후회만 하느니
頭邊歲月苦鬚鬢 (두변세월고침침)
머리맡 세월은 멈추지 않고 화살 같네.





문화관광부 선정
2005년 7월, 이달의 문화인물

성남시 향토사적 인물

성남시향토문화재 제1호

여류문사 강정일당(姜靜一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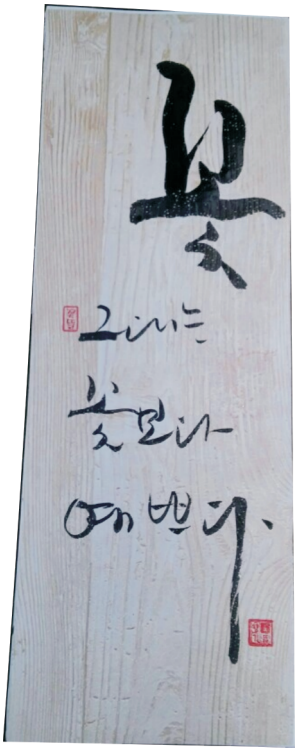
강정일당(1772–1832)은 극심한 경제적 가난으로 5남 4녀를 모두 잃는 불행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남편 윤광연을 훌륭한 선비의 길로 인도한 여성 문사이다. 성리학과 경술에도 밝았을 뿐 아니라 시와 서화에도 능했다. 평생 동안 쓴 글을 남편 윤광연이 모아서 『靜一堂遺藁(정일당유고)』를 펴냈다.

除夕感吟 (섣달 그믐날 느낌이 있어 읊다)

無爲虛送好光陰　좋은 세월 하는 일 없이 다 보내고
五十一年明日是　내일이면 내 나이 쉰하나.
中宵悲歎將何益　밤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으리.
且喜餘生修厥己　여생 동안 내 한 몸 닦는 수밖에

성남문화의집 특색강좌 및 동아리소개

01 캘리그라피



최근 글자 또는 글자로 구성된 문구가 개성 있게 표현된 도안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글자를 활용한 독창적인 도안들을 캘리그라피(Calligraphy)라고 한다.
캘리그라피는 붓이나 펜으로 쓴 듯 질감이나 필력이 느껴지는 글씨를 말하는데, 보통 긴 장문에는 적합하지 않고 인용문이나 제목처럼 글자 속의 메시지·이미지·분위기 등을 전달해야 하거나 제품명 또는 기업 심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영화 포스터, 드라마 타이틀, 북커버, 패키지, CI, 현판, 거리의 간판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보통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붓과 먹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스펀지, 면봉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할 수도 있고 또한 붓과 먹을 통해서 다양한 글씨체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성남문화의집 캘리그라피 수업은 매주 금요일 오후 13:00~15:00 이며, 15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글씨에 자신만의 감성을 입히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 수업을 추천한다.

02 클래식기타, 통기타



클래식기타와 통기타의 차이는, 클래식 기타는 현이 나일론 줄로 되어 있고, 어쿠스틱 기타는 쇠줄로 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클래식 기타는 부드러운 나일론 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 주로 가사가 없는 연주곡을 연주할 때 많이 사용되며 주로 아르페지오 주법(손으로 줄을 뜯으면서 소리를 내는 주법)으로 연주한다. 통기타는 강하고 탄력 있는 쇠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래식 기타보다 시원하면서도 통통튀는 소리가 난다. 가요나 가사가 있는 곡들을 연주할 때 주로 쓰이며 스트로크(줄을 쓸고 지나가는 주법)로 시원하고 경쾌하게 연주한다.
아르페지오 주법도 사용하지만 줄을 부드럽게 뜯어 소리를 낸다.
클래식기타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14:00~16:00 이며 20명 정원이고, 통기타는 매주 토요일 오후 13:30~15:30까지 10명 정원으로 성남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삶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는 성남문화의집 기타 수업을 추천한다.



03 아코디언 '향기'

매주 월요일 14~16시
새롭게 등록한 아코디언 동아리 '향기'.
아직 서툴고 적은 인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회원도 늘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코디언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열정적인 회장님과 서로의 곡을 공유하고 함께 연주하며 연주법을 익히는 회원들은 모임이 있는 월요일이 매우 기대된다.





2016 추진사업

특색 사업

- 성남학아카데미
- '남한산성문화권 협의회' 운영
- 송산 글짓기대회(16회)
- 중국 선양시 교류
- 「내 고장 성남」 역사교실
- '문화가 있는 날' 詩(시)읽고, 詩(시)쓰기
- 내 생에 첫번째 방송(청소년방송제작교육)
- 성남시 향토 민속놀이 시연
-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시연
- 향토유적지 순례(4회)
- 향토사 토론회 주관
- 성남시민을 위한 인문학 수요강좌 운영
- 성남 옛 이야기
- 성남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
- 정자중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연중 사업

- (부설) 성남학연구소 운영
- 성남문화의 집 위탁 운영
- 2016 성남시 새 해 천제봉행
- 제97주년, 성남3.1만세운동 기념식
- 제19회, 강정일당상 시상
- 제21회, 학술회의
- 원보 <성남문화> 발간
- (부설) 성남문화해설사회 운영
- (부설) 문화학교 운영
- 수내동 전통가옥 관리
- 제15회, 성남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 제25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 제9회, 문화원의 날 행사
- 개원38주년 기념식
-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 성남문화연구 23호

상반기 향토유적답사

01 향토유적지 순례 1차 (강원도 영월군 일대)

2016년 첫 향토유적지 순례를 4월 19일 화요일에 단종의 슬픔이 묻혀있는 강원도 영월로 다녀왔다. 이날은 조선 제6대 단종임금의 유배지였던 '청령포', '장릉'을 중심으로 1960년대를 재현한 '탄광문화촌', 강 건너 한반도를 그대로 축소한 '한반도 지형' 등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숙연하고 뜻 깊은 코스로 답사가 진행되었다. 향토유적지 순례를 참여했던 한 참가자는 '이번 답사를 통해 어린 임금 "단종"의 한이 서려있는 많은 이야기를 알 수 있었고, 영월군의 아름다운 절경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이었다'라고 전했다.



02 향토유적지 순례 2차 (경기도 용인시 일대)

두 번째 향토유적지 순례는 산수가 수려하고 유서 깊은 숨은 명소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경기도 용인으로 다녀왔다.
이날 방문한 유적지는 희귀 명종위기식물, 자생식물 및 외래종을 포함하여 약 8,000여 종을 식재 및 관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원인 '한택식물원'과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국내유일의 사찰로 김해근 삼장법사가 창건한 '와우정사',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기획전시와 몽골, 중국, 일본 등 해외박물관과의 특별교류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경기도박물관', 고려 말기의 충신으로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를 다녀왔다.

03 성남학아카데미 1차 현장답사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광명시 일대)

성남문화원(원장 김대진)은 성남학아카데미 수강생 40여명은 6월 21일(화) 경기 화성, 수원, 광명 일대를 다녀왔다. 이날은 화성 용주사와 융건능, 수원 화성행궁, 광명동굴과 충현박물관을 다녀왔다. 화성 용주사와 융건능, 화성행궁 답사를 통해 조선 22대 왕인 정조에 대한 효심을 보고 배웠으며 광명동굴에서는 과거 일제강점기와 우리나라 광산산업의 역사를 한 곳에서 볼수 있었다.
충현박물관에서는 선조 · 광해군 · 인조 3대 동안 영의정을 지낸 오리 이원익 선생의 인생과 그 후손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일정	사업명	사 업 내 용
7~11월	**향토유적지 순례**	기간 : ~ 11월 장소 : 국내 주요 문화유적지 내용 :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적지 답사
7~11월	**내 고장 바로알기**	기간 : ~ 11월 장소 : 관내 초등학교 내용 : 학교를 찾아가는 문화해설사의 성남 역사 강연
7~12월	**성남학 아카데미**	기간 : ~ 12월 장소 : 문화원 5강의실 내용 : 성남의 문화유적, 지명유래, 설화, 문화시설, 인문학 등의 각계각층의 전문강사진으로 구성 된 강의
7월	**제25회, 성남사랑 글짓기**	일시 : 7. 9 (토) 10:30~ 장소 : 성남시청 앞 분수대광장 내용 :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 강정일당 추모 백일장으로 관내 학생 및 일반 참가
9~12월	**제4기 인문학 아카데미**	일시 : 9월 ~ 12월 장소 : 문화원 5강의실 내용 :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성남문화원 공동 추진
9월	**제16회, 송산 백일장**	일시 : 9. 24 (토) 10:30~ 장소 : 성남시청 앞 분수대광장 내용 :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2호 송산 조견 선생의 추모 백일장으로 관내 초등학생 참가
9월	**제11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일시 : 9월 23 ~ 24일 장소 : 부천시 실내체육관 내용 : 성남시 대표팀 '성남 오리뜰 농악'참가
10월	**개천절 단군제 및 도당굿 문화 축제**	일시 : 10. 3 (월) 13:00~ 장소 : 산성공원 놀이마당 내용 : 단기 4349년, 개천절 기념식 및 제22회 도당굿 문화축제
10월	**제19회, 강정일당상 시상**	일시 : 10. 10 (월) 15:00~ 장소 : 성남시청 한누리홀 내용 :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강정일당을 추앙하며, 성남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을 선정하여 시상 ('성남사랑 글짓기' 시상식 병행)
10월	**제21회, 학술회의**	일시 : 10. 26 (수) 14:00~ 장소 : 성남시청 한누리홀 내용 : 낙생 행궁 주제
10월	**성남시 향토민속놀이 시연②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시연회**	일시 : 10. 15 (토) 14:00~ 장소 : 산성공원
12월	**2016 성남문화가족 송년회**	일시 : 12월 中 장소 : 서현 '만강홍' 내용 : 유공 임 · 직원 표창, 축하공연, 친교의 밤 등
2017. 1월	**2017, 새 해 천제봉행**	일시 : 1. 1 (일) 장소 : 판교 마당바위 내용 : 식전행사, 천제봉행, 식후행사(새해 메시지 낭송, 시민 대북 타고 등)

※ 행사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성남문화원















참여의 문화, 나눔문화의 산실

성남문화원